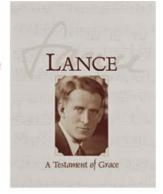
# (This article concludes the discussion of this important topic which was begun in the April issue of the Signal.)



# Repentance (Part 2)

OF WHAT DOES THE HOLY SPIRIT CONVICT THE WORLD? We find the answer in that great passage in John 16:8-11. Here is recalled just what God's issue with the world is, of which they must repent to be saved. "When He (the Holy Spirit) is come, He will reprove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ement."

#### OF SIN. BECAUSE THEY BELIEVE NOT ON ME

This is the issue of God with the unsaved, and the sin of which they must repent! It is not in regard to their habits, their living, their obedience to the law in one form or another. In short, repentance is not another word for "reformation." It is not preparing or repairing the natural man for salvation. It is an attitude on our part to Christ and His finished work on Calvary.

This is all-important. If we preach repentance as merely reformation, we are legalists. We are practically exhorting a new law-obedience. "This man has stolen: he is to steal no more." We would be preaching law-obedience to the eighth commandment; we would not be preaching GRACE, and would be under God's curse (Galatians 1:8). We repeat: God, through the Holy Spirit, is convicting the world of sin, "BECAUSE THEY BELIEVE NOT ON ME." And this is Holy Spirit conviction on a sinner's heart.

We can see, therefore, how the word 'believe' includes "repentance." The sinner has turned down God's offer of salvation through the shed blood of Christ. When he repents, he reconsiders this attitude of heart. He believes that Christ is God and the Son of God, and that He bore the sins of the world, and personally HIS sins on the cross of Calvary. He rests in what has been done. We mights profitably list all the passages where the word "repentance" or "repent" is used — our space will not permit. But, observe two such passages:

## II TIMOTHY 2:25 and HEBREWS 6:1

In II Timothy 2:25 are the words, "if peradventure God will give them repentance to the acknowledging of the truth." How beautifully this describes the Scriptural repentance of an unsaved person! The "acknowledging of the truth" as it is in Christ Jesus is the great issue God has with the sinner. Likewise, in Hebrews 6:1, the repentance is "from dead works." Instead of encouraging "dead works" as a basis of salvation, here they are actually to be repented of.

We realize that in such a short article as we are writing, it is impossible to go into this matter as thoroughly as we would lie. But we trust that even here in these few words we have made an emphasis on the Scriptural meaning of the word "repentance" and a "change of mind." Also, we have emphasized the fact that we must read the context of passages to discover ABOUT WHAT God wants us to "change our minds." God could have a thousand issues with a sinner. The great sin is the rejecting of mercy as offered by God's Son, on the cross of Calvary in the God—given Gospel of GRACE.

#### REPENTANCE NOT A PRELIMINARY REFORMATION

We have written this article because we hear repentance so often described as s preliminary work a sinner must do before he can accept Jesus Christ. So often the unsaved are told to confess their sins, make restitution, surrender completely to God's will, be sorry, pray earnestly, and so forth. All this, if preached as a preliminary work, will actually hinder the sinner from finding real peace now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REAL SALVATION will put a desire into the heart to do all these things. But we do not DO in order to be saved or to stay saved. The simple message of GRACE is, IT IS DONE! Any "DO" that any of us try to do is adding to the message, which destroys the gospel of GRACE. The repentance of an unsaved man is to acknowledge himself as a lost sinner before God, and, instead of trying a new obedience to law, to believe and personally REST in the glorious fact that on Calvary's cross Christ paid the entire account that was against him.

As William Reed so well says in "The Blood of Jesus":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 of a preliminary work of righteousness or a subsequent work of sanctification in addition to the finished work of Christ, the natural man can easily comprehend, but to be justified on the grounds of that finished work on Calvary and that alone, is totally beyond his comprehension."

And, William P. Mackay says in his matchless book, "Grace and Truth": "Until you stand still and realize that there is a nail through all your self righting, and a nail through all your carnal activity and agility, and accept salvation for nothing, knowing that you are saved simply on the authority of the Word of God, you will never be save."

May God enable us to put that mighty work done on the cross of Calvary in the place where God puts it.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save in the cross of Christ, by which I am crucified unto the world and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 회개 (제2부)

(이 글은 지난 호에 이어서 믿지 않는 영혼의 회개라는 중요한 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16:8-11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결론, 즉세상이 구원받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성령)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 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즉 죄인 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구원 받지 못한 이들의 죄는 그들의 습관이나 생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 등이 아닙니다. 결국 회개는 인간의 (행위가) "개선(reformation)"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준비하거나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갈보리에서 행하신 완성된 사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를 (인간 본성의) 개선으로만 설교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신 개념의 율법주의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십계명 중 제8 계명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물건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지 않고 율법을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갈 1:8).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죄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책망하는 것은 죄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은 죄인들의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다'는 말에 '회개'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은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그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돌이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회개" 또는 "회개하다"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 디모데후서 2:25과 히브리서 6:1

디모데후서 2:25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의 성경적인 회개에 대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1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from dead works)"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기초가 "죽은 행실(dead works)"을 고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faith toward God)"을 갖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6:1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KJV)으로 읽으면 더욱확연하게 나타납니다. — 역자주)

이렇게 짧은 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회개를 깊이 있게 다루 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가 "마음 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 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 여 수천가지의 이슈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공하 신 하나님의 긍휼, 즉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 회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 라, (죄의 결과를) 배상하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 용 서를 빌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 을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 설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 하신 (갈보리) 사역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죄인 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러한 일들에 행하기 원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또는 구원 받은 상태에 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추가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은혜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율법에 순종하려는 어떤 시도가아닌, 자신의 최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희생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믿는 것입니다.

윌리엄 리드(William Reed)가 그의 글 "그리스도의 보혈(The Blood of Jesu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사역 이전에 있어야할 행위와 그 이후에 있어야할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를 더하는 것은 본성적인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완성된 사역만이 (죄인이)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본성적인)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윌리언 맥캐이(William P. Mackay)도 그의 책 "은혜와 진리(Grace and Truth)"에서 이와 같이 언급합니 다. "만약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과 당신의 육신적인 행위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을 깨닫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에만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써, 즉 아무 값없 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 러하니라"(갈 6:14).